

대구주보

주님 공현 대축일
2012.1.8.(나해) 제1763호



† 금주의 성화

주님 공현 대축일

창조주 하느님께서 몸소 지으신 세상에 나타나시고 만방에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신다. 천사는 목동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루카 2,10-11)하고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음을 알리며, 주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빛이 이방인들에게 은총의 시대가 왔음을 드러낸다. 하느님께서 나타나시면 겸손한 사람들은 경배하고 기뻐한다.

이홍구(스테파노) 작
한국 가톨릭 이론연구소 소장

† 오늘의 전례

우리는 동방에서 임금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마태 2,1-12 참조)

오늘은 주님 공현 대축일입니다. 공현(Epiphania)이라는 말은 하느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을 뜻합니다. 이 축일은 본래 1월 6일이지만 1월 2일과 8일 사이에 오는 주일로 옮겨 지냅니다. 오늘의 복음 말씀은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찾아온 이야기를 전해 줍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어둠에 싸여 있는 세상을 비추시는데, 하느님의 빛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민족과 나라를 인도하십니다. 겸손하고 보잘 것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의 영광이 큰 기쁨이 되지만, 안다는 사람들과 권세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제 눈을 가리고 이 빛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새해를 어떻게 시작할까?



여영환 오토 신부 / 관덕정순교기념관 관장

“행복의 문은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들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대개 닫힌 문들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우리를 향해 열린 문을 보지 못한다.” 우연히 읽었던 헬렌 켈러의 글이다. 흑룡의 해가 밝았다고 요란하더니 새해도 벌써 한 주일이 지났다. 새해를 어떻게 맞이했는가? 새해를 무엇으로 시작했는가? 전례력으로 보면 오늘 주님 공현 대축일과 내일 주님 세례 축일로 성탄 시기가 끝나고 연중시기가 시작된다. 주님의 생애에 따르는 전례력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주님의 현존을 매번 새롭게 느낄 수 있도록 열려 있으니.

오늘 주님 공현 대축일에 주님께서서는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신다. 박사들은 동방에서 별의 움직임을 연구하던 이들이다. 어느 날 너무도 찬란한 별을 발견한 그들은 그 별이 바로 인류가 기다려온 구세주가 태어날 표징임을 깨닫는다. 그 별의 움직임을 따라 산도 넘고 강도 건넜다. 별이 사라졌을 때는 헤로도도 만나야 했다. 다시 나타난 별이 멈춘 곳은 베들레헴이었고 그 곳에 한 아기가 어머니인 마리아 품에 안겨있었다. 구세주를 직접 뵈 박사들은 감격한 나머지 엎드려 경배 드렸다. 힘들었던 지나온 시간들이 눈 녹듯 다 녹아내렸다.

주님께서서는 이렇게 늘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통해서 당신의 현존을 드러내신다. 잉태 때에는 마리아와 요셉을, 태중에서는 엘리사벳을, 탄생 때는 목자들과 오늘 동방박사들을, 봉헌 때는 시메온과 한나를, 세례 때는 요한을, 복음을 전할 때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는 백인대장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셨다. 지난 이천 년 동안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그때그때 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통해서 당신의 현존을 드러내고 계시니 참으로 주님만이 우리 구세주이시다.

특히 우리 대구대교구의 신자들에게는 루르드의 성모님과 순교자 이윤일 성인을 통해서 당신의 현존을 드러내신다. 해마다 1월 21일은 이윤일 요한 성인의 순교기념일이다. 성인께서 주님 품에 오르신 관덕정 순교성지에서는 오는 목요일, 12일부터 ‘이윤일 성인과 함께 드리는 구원 기도’ 미사가 매일 오후 세시에 봉헌된다. 새해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행복의 문은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들이 열린다. 주님의 공현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주님의 공현은 끝이 없으시다. 

주일 말씀으로 배우는 교리 : 주님 공현 대축일

모든 사람을 비추는 빛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국진 보나벤투라 신부 / 교구 비서실장

주일 말씀

주님 공현 대축일은 하느님께서 동방박사들에게 아기 예수님을 보여주심으로써 당신의 구원과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심을 기념하는 축일입니다.

제1독서는 유배에서 해방되어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구원 약속은 성취되었으며, 하느님의 사랑은 온 세상을 골고루 비추는 햇살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비하시며 용서하시는 하느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것임을 예고합니다.

복음에 등장하는 동방박사들은 구세주를 찾아서 먼 곳으로부터 옵니다. 율법도 모르는 외국인, 이스라엘이 배척하던 이방인인 동방박사들은 별빛을 따라 구세주를 찾아 나섭니다.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발견한 동방박사들은 기뻐 무릎을 꿇고 선물을 드리며 구세주를 찬미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느님 사랑의 상징입니다.

말씀과 교리

• 구원의 보편성

그리스도는 인류의 빛입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구원을 주시며,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공현’(公顯, Epiphany)이라는 말은 ‘보여줌’, ‘드러냄’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말씀인 예수님은 인류의 빛이시며, 하느님은 누구도 제외됨 없이 모든 사람을 당신 사랑의 잔치에 초대합니다. 교회는 이 구원의 보편적 선물을 세상에 선포합니다.

말씀과 성사

교회는 성체성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를 거행합니다. 파스카 신비란 예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으로 건너감을 의미합니다. 이 파스카 신비를 통하여 하느님의 구원계획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묵상해 봅시다

-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빛’이라는 사실을 생활 안에서 어떻게 느끼니까?
- 하느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실까요?
- 일상생활 안에서 하느님의 평등한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번 호부터 주일의 성경 독서로 배우는 교리를 3면에 연재합니다.

특집이 나가는 경우와 매월 마지막 주를 빼고 매주 신게 되며, 마지막 주에는 신경 해설이 연재됩니다.

트위터를 하시는 교황님

허진혁(바오로) 신부 / 삼덕젊은이성당 보좌

“친애하는 친구들, News.va를 시작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미! 내 기도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

2011년 6월 29일, 바티칸 뉴스 포털 사이트 www.news.va가 개설되면서 교황님께서 트위터를 통해서 처음으로 올리신 글입니다. 트위터는 페이스북과 함께 요즘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대한 언론사들이 정보를 독점하다시피 했는데, 이제는 개인이 스스로 정보를 생산해내고 전 세계 사람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놀라운 시대가 온 것입니다.

SNS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근래에 논란이 많습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점차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이 새로운 소통의 장을 교회가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화의 사명을 위해 세상에 뛰어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많은 청년들을 만나지만, SNS를 통해서도 그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도 듣습니다. 서로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지 등을 말합니다. 신자 청년들이 저의 강론을 듣는 시간은 1주일에 고작 10분 남짓하지만, 이



SNS를 통해서 저는 언제 어디서든지, 신자건 신자가 아닌건 동시에 수백 명에게 하느님 말씀을 들려줄 수 있습니다.

신교도 사목도 모두 만남과 대화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SNS가 열어 주는 새로운 소통의 장에는 경계해야 할 요소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경로로든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SNS를 통해서 현대인들과 소통을 시도하시는 교황님의 모습은 상징적이면서도 실제적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늘 삶의 현장을 찾아다니시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봅니다. **김영민**

1월의 신앙실천 캠페인 **신자라면 신자답게**

서로 세례명을 부릅니다.

교우들끼리 인사할 적에 “~사장님”, “~원장님”하고 세속의 직위나 호칭을 쓰는 것을 가끔 봅니다. 하느님 안에 한 형제가 된 교우들끼리 서로 세례명을 부르는 것이 가장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주님께서는 아버지나 스승으로 불리지 않도록 하라고 주의를 주시며, “너희는 모두 형제다.”(마태 23,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상징하는 이름, 새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몸소 붙여주신 이름이 바로 세례명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높은 벼슬이라도 이보다 더 자랑스럽고 소중한 이름은 없습니다. **김영민**



가톨릭교회의 4대 신덕교리(四大信德敎理) - 1

가톨릭교회가 가르치는 믿을 교리로는 하느님의 존재, 삼위일체, 강생구속, 상선벌악(賞善罰惡)의 네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이를 4대 교리, 혹은 4대 신덕교리라고 합니다.

1. 하느님의 존재

창조주 유일신은 움직임이 없는 존재로서 만물을 섭리하여 움직이게 하고 보존하십니다. 모든 움직이는 것은 피동체이니 불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존재하고 움직이는 우주만물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유일하고 전능한 창조주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이 당신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하셨습니다. 첫째, 인생의 의미나 목적과 같은 심오한 문제를 사람이 궁리하지만 끝내 자기 힘으로 답을 얻지 못함을 보면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모든 진리를 알고 계신 분이 계시야 하는 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우주의 질서와 사람마다 갖추고 태어난 양심을 보면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재하시는 위대한 능력자가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느님께서는 여러 예언자들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이

창조주이심을 직접 계시하셨는데, 이 계시는 성령의 감도하심으로 기록된 성경(聖經)과 기록되지 않은 채로 교회 안에 전래되는 성전(聖傳)에 담겨 있습니다.

완전하고 유일한 절대자이신 하느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인자하시며, 아니 계신 곳이 없이 어디나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으며 그 목적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사람들이 그 영광과 행복에 참여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중에 가장 존귀한 것은 하느님을 닮아 지성과 자유를 갖춘 천사와 사람입니다.

천사는 사람보다 뛰어난 지능과 의지를 가진 신령한 존재로서 늘 하느님을 곁에서 모시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은 수호천사는 사람마다 한 위가 정해져 있어 선을 권하고 악을 피하도록 사람을 인도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을 배반하여 타락한 천사는 마귀, 혹은 악마라고 부르며, 사람이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시기하고 사람을 죄악으로 유인하여 구원을 받을 수 없게 하려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오늘의 미사 • 주님 공현 대축일

【입당성가】	100 동방의 별
【제1독서】	이사 60,1-6
【화답송】	◎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섬기게 하소서.
【제2독서】	에페 3,2,3-5-6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봉헌성가】	156 한 말씀만 하소서
【복음】	마태 2,1-12
【영성체송】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예물을 가지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성체성가】	211 주여 나의 몸과 맘
【파견성가】	487 동방의 세박사

† 교구 소식



† 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송년의 밤

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송년의 밤이 2011년 12월 27일 (화) 저녁 6시30분, 인터볼고 엑스코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교구장 대주교님을 비롯하여 교구 총대리, 사무처장, 사목국장 신부님과 상임위원 부부동반으로 참석한 가운데 교구장 대주교님의 교구장 착좌 1주년 축하식과 만찬, 친교의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교구장 대주교님께서는 올 해 교구 100주년 관련 행사와 시노드에 평협위원들의 참여와 수고에 감사를 표하시며, 내년에도 이어질 3대 사업에도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셨다.



† 교구 100주년을 마무리하며

교구장 대주교님께서는 2011년 12월 31일(토)부로 교구 100주년 경축과 관련된 모든 업무의 종료를 선언하시고, 100주년 사무국을 비롯한 관련 직책들을 해제 하셨다. 각 본당의 100주년 홍보대사들에게는 직접 편지를 보내시어 그동안의 수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시고 앞으로 새로운 100년을 열어가는 일에도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하셨다. 그러나 교구 100주년 3대 기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들은 관련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다.

† 교황청 소식



† 2012년 1월 1일 세계 평화의 날 담화문 발표

교황 베네딕토 16세 성하께서는 “젊은이들을 위한 정의와 평화의 교육”이라는 주제로 제45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를 발표하셨다. 교황님께서는 미래 세대가 평화의 거레가 되고 평화의 일꾼이 되도록 교육해야 하며, 평화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연민, 연대, 협동, 형제애, 능동적인 공동체 활동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어려움에 좌절하지 말고 쉬운 길로 보이는 그릇된 해결책에 기대지 마십시오. 성실과 인내, 겸손과 헌신을 요구하는 길을 선택하십시오.”라고 당부하셨다.

† 금주의 주요 교구일정

- ▶ 2012년 1월 12일(목)~20일(금) 15:00, 제21회 성 이윤일 요한제 9일 기도 미사 - 관덕정순교기념관
- ▶ 2012년 1월 13일(금)~15일(일), 2012년 교구 청년 윤일제 - 대구가톨릭대학교 하양 캠퍼스

큰소리만 뱅뱅

박성규 엘리지오



성소 모임

살레시오수도회 성소피정

일시: 1.13(금)~15(일)
장소: 서울 대림동 수도원
대상: 남성 고3~30세
참가비: 3만원
문의: (010)3894-1332

한국외방선교수녀회 땅끝 모임

일시: 1.14(토) 14:00
장소: 관덕정성지
내용: 외방선교에 관심있는 젊은여성
문의: (011)9319-1690

살레시오 수도회 수도생활 체험

1차: 2.6(월)~9(목)
2차: 2.10(금)~13(일)
장소: 서울 대림동 수도원
대상: 남성 고3~35세, 참가비: 4만 원
문의: (010)7144-2150

2012년도 재속프란치스코회 자원자 모집

일시: 3.10(토) 14:00
장소: 월배성당 뒤 프란치스코회
대상: 53세 이하 가톨릭신자
문의: 632-9800 / (011)9594-9441

제33차 수도생활체험학교

일시: 2.9(목)~12(일)

장소: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대상: 고등학생이상~만32세이하 미혼 남녀
문의: (054)970-2000 / (010)8353-2323

피정 / 교육

새해 영성특강

일시: 1.12(목) 15:00
강사: 황창연 신부(수원교구)
주제: 유혹과 행복
문의: 관덕정순교기념관, 254-0151

더 나은 혼인생활을 위한 ME주말

대구296차: 2.10(금) 19:00~12(일) 18:00
장소: 한티 피정의집
문의: 983-0521
※사랑의 대화 방법을 알게 됩니다.

모집

2012년 전기2차 대구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신입생 모집(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과정)
기간: 1.4(수)~10(화)
문의: 850-3637, 3584, <http://www.cu.ac.kr>

2012년 전기3차 대구가톨릭대 특수대학원

신입생모집(석사과정, 야간, 2년제)
기간: 1.4(수)~10(화)
과정: 경영, 디자인, 신학, 사회복지
보건과학대학원, 국제대문화, 음악대학원

문의: 660-5512, <http://www.cu.ac.kr>

대구가톨릭남성합창단 단원 모집

일시: 상시모집, 계산 문화관 5층
자격: 가톨릭 교인으로 음악을 사랑하는 이
(성악 비전공자도 가능합니다)
문의: 홍보위원장 송재용, (010)3352-8748
※신단원 교육: 3개월간 수습 교육

통신으로 배우는 신학과정(신입생 모집)

대상: 세례 받은 평신도와 수도자
내용: 산구약, 신학 일반(그리스도론 등)
원서접수: 2011.11.7(월)~2012.2.10(금)
문의: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신학교육부,
(02)745-8339(ci.catholic.ac.kr)

살레시오회 돈보스코직업학교학생모집

접수: 2.29(수)까지 수시접수, 면접전형
대상: 만15~29세 남자
학과: 1년 과정(기계조립과 70명)
교육내용: 기계가공, CAD/CAM,
자동화기계, 인성교육
문의: (02)828-3600

대구 마리아학교 수강자 모집

일시: 3.7(수) 14:00~17: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내용: 성경, 전례, 역사, 문헌,
이론 속의 마리아
접수: 255-4701 / (010)2635-0534

미사 안내

1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월 9일 (월) 오전 11시	계산주교좌성당
2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월 9일 (월) 오전 11시 30분	2대리구청 - 범어성당
3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월 9일 (월) 오전 11시	3대리구청 - 월성성당
구미지역 군중후원회 미사	1월 9일 (월) 오전 11시	신평성당
포항지역 밀알후원회 미사	1월 9일 (월) 오전 11시	죽도성당
대구가톨릭생활성가협회 월례미사	1월 9일 (월) 오후 7시 30분	삼덕성당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1월 14일 (토) 오전 11시	성모당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2007 ISO 9001-2000 품질관리 인증업소, 그 명성과 자부심
엄선된 최상급 식재료와 올리브유, 식물성 기름만을 고집합니다.
올려놓은 비즈니스 모임, 각종회는 최고의 상견례 명소

자글성
대표: 정경숙(스텔라), 황기철(요한)
예약 (053)767-6700 대구 수성구 황금동 LG전원빌

진실한 신자와의 만남의 장
성가정 결혼
(053)474-0025, 476-9275
가톨릭 문화관 2층
남대구우체국 옆 교대역 입구
권종문(파비올라)

30년 전통의 전차파없는 돌침대
(주)장수구돌침대
2인용 돌침대 **88만원**
1544-3837
(053) 656-9990
앞산네거리 (보훈청 옆건물)
대표: 소춘호(레오)

김동익 소아청소년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안과
피부과, 진단검사의학과, 가정의학과
야간진료, 일요일 진료
북구 관음동 칠곡 IC 사거리 옆 (한양수정아파트 상가 1층)
(053)323-6006
<http://www.soagwa.net>
원장, 전문의: 김동익(요한)

분도는 한 방울의 기름도 속이지 않습니다!
분도석유
전화 한통하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 080-421-5151(무로전화)
242-2240, 743-1977, 957-9543
대표 김현철(베네딕도)

건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멸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코), 박필교(율리안나)
☎ (053)255-9077
010-9447-5193

라식,백내장 수술 전문안과
+ 대구연세안과
아이리식,안내렌즈,노안,백내장수술
의 학 박 사
원,연세대의과교수 원장 박 중 원(소시모)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 2번 출구)
☎ (053)626-8881~5

모임 / 행사

2012년 교구 청년 윤일제

일시: 1.13(금)~15(일), 2박3일
장소: 대구가톨릭대학교 하양캠퍼스
주제: "너도 가서 그렇게 하려라."
(루카 10,37)

문의: 교구 사목국 청년담당,
422-6692

제21회 성 이윤일 요한제에 초대합니다

9일 기도미사: 1.12(목)~20(금) 15:00
순교가림미사: 1.21(토) 17:00
주례: 교구장 조환길 대주교
문의: 관덕정순교기념관, 254-0151

교구 평협 제단체장 연수

일시: 1.15(일) 09:3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대상: 교구산하 신심 및
액션 단체 담당사제 및 임원

떼제기도회

일시: 1.14(토) 20:00, 삼덕성당

가톨릭운전기사사도회 월례회

일시: 1.11(수) 14:00, 가톨릭교육원

교육

1월 가나강좌 (1인당 2만 원, 당일 접수)

일시: 1.15(일) 10:00~17:00
장소: 가톨릭의료원 의대 마리아관
문의: 641-5678 / (010)8853-7458

제5차 로고스 창세기(성인반) 연수

기간: 2.4(토)~5(일), 1박2일
장소: 교구청 꾸르실료교육관
참가비: 8만원
주최: 교구 성서사도직, 250-3082

모집

2012년도 학산야간중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기간: 1월~2월
내용: 검정고시 대비반(중고)
장소: 학산종합사회복지관(달서구 월성동)
문의: 634-7230

노틀담 오르프 단기 지도자 과정

일시: 1.9(월)~11(수) 09:30~18:00
장소: 상인동 소화 어린이집
문의: (010)7392-1227 / (010)9034-4911
<http://cafe.daum.net/notredameorff>

스페인어 초급 모집

기간: 기초반 3개월 과정, 대상: 성인
문의: 가톨릭근로자회관, 253-1313

가톨릭문화관 교육생 모집

과정: 통기타, 바이올린, 플루트, POP, 초
크아트, 례페인팅, 천연비누·천연화장품
문의: 476-6211

가톨릭요셉발간강회 강좌 <발은 제2의 심장>

일시: 매주 토요일 14:00~16:00(10회)
문의: 476-7774 (교재 및 도구포함 10만 원)
<http://www.footfather.com>

프란치스카눔 영어성경 학생 모집

대상: 초등학교 3학년~6학년
첫모임: 1.28(토) 13:30
장소: 프란치스카눔(월배성당 뒤)
문의: (070)4266-0045 / (010)5383-0650

채용

상동성당 신자조합 여직원채용(1명)

제출서류: 자기소개서, 자필이력서,
최종학교졸업증명서 교적사본
문의: 764-0664

비안네유치원 교사모집

지원자격: 2급정교사, AMI몬테소리
교육이수자 경력2년이상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 소개서
서류제출: 1.9(월)~11(수) 17:00
유치원교무실

대구가톨릭대학교 기숙사 사감모집

신청자격: 35세이상 미혼여성이며,
가톨릭신자 4년제 대학졸업자
근무조건: 기숙사 내 숙식, 2년 계약
문의: 859-4063~4
참조: <http://dormitory.cu.ac.kr>

안내

교구법원 공시(253-9550)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
에 대해 문의 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박창근(요셉), 김의숙(베로니카)

바느의 성모 79주년 발현 기념 감사 미사

일시: 1.15(일) 19:00, 다산성당
문의: 바느의 성모기도회, 427-7543

일거리를 찾습니다.

들꽃마을 가족들이 할수 있는
단순 임가공 일거리를 찾습니다.
문의: 사회복지시설 들꽃마을,
(054)956-9800

2012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적
사본, 봉당 신부님 추천서, 광고문안
사회복지 관련 사업체인 경우 추가로
교구 사회복지회 국장 신부님 추천서
광고료: 7면 13만 원, 8면 15만 원
문의: 문화홍보실, 250-3052

곡앤신 이비인후과
진료과목 - 성형외과 · 소아청소년과
의협박사/원장 신재훈(루카), 광동석(아우구스티노)
코수술 전문병원 (축농증, 비염, 코골이, 코성형)
(1호선 성당역 3번 출구)
☎ (053)638-7582(치료빨리)
<http://www.knose.com>

전통한복의 명가 대한민국 한복명장
이명자 한복방
· 혼수/예단/수 · 한산모시 전문점
중구 반월당 삼정그린코아 상가 115호
☎ (053)421-2827/421-2828
이명자(세실리아), 강윤정(아네스)

에이 통증의학과
비수술적 치료전문
· 목/허리 디스크 · 척추관 협착증
· 오십견/어깨통증 · 두통/어지럼증
· 무릎 관절염 · 스포츠손상 통증
통증의학전문/원장 이준석(이냐시오)
- 대구가톨릭병원 외래교수 -
TEL : (053)742-8275
범어네거리 / 지하철 2호선 범어역 1번 출구 앞

소아난치병 전문한의원 / SINCE 1999
성모아이한의원
www.sungmoi.com
어린이 잦은감기 · 식욕부진 · 성장
한 의 학 박 사 김 성 철(비오)
동국대 한의학과 교수
☎ (053)592-1275, 593-1275

"하지정맥류만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 이 연 재(에릭)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청정재주의 신선한 유기농우유
성기사들 목장우유
제주우유 (대리점모집)
유기농우유, 저지방우유, 제주초지방우유
대구총판매점 대표
최준하(바오로), 박창완(마리아)
☎ (053)426-3300 www.jejumilk.kr

경일신경과내과의원
· 뇌졸중(중풍), 치매조기진단
· 성인병, 5대암, 생애진단검진
· 어지럼증, 두통, 손발저림 진단 및 치료
MRI, CT 영상의학진단센터
- 신경과 전문의 4인 - 내과 전문의 2인
-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
대표번호 053)652-2525 www.kinm.co.kr

20년 역사, 미국 FDA 등록
영양제
수맥흙침대
불면증, 허리통
임응승 신부님 수맥지도
☎ 1588-5335